

21세기는 문화가 지역경쟁력이다

金容雄 |
충남발전연구원장



자연에 순응하기만 하던 인류가 자연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사고를 도입하여 꾸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culture)는 생겨났다. 문화는 인류가 여유로와진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창출해 내고, 삶의 의지와 성취에 대한 기쁨을 소리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결과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룬 문화적 유산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이끄는 키워드로 삼고 자신만의 문화 재발견과 모습 갖추는 데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세계화로 인하여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은 문화를 산업과 경제발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전통적인 산업화 전략 패러다임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동안 국가나 지역발전은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산업생산의 확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데 치중했다. 이 같은 산업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문화란 여유 있고 한가로운 계층이 향유하는 소비부문의 하나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대량생산의 산업화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정보와 지식기반경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와 산업발전에 있어 문화에 숨겨진 내재적 가치가 새로이 발견되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첫째, 문화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예술과 공연으로서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생활전통과 생산방식, 관습과 행태까지도 상품으로 포장하여 진열대에 올려놓는 시대가 됐다. 이제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미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 국내매출 규모는 49조원, 해외수출은 7억불에 달하고 2010년에는 국내매출은 두 배가 넘는 94조원, 해외수출은 10배에 가까운 6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레저산업을 전략

산업화하여 집중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문화·관광산업의 규모는 전체 지역개발 신규투자 20조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문화야말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핵심적 결정 요인이다. 후기 산업사회에 도달하면서 획일화된 상품과 지역 이미지에 싫증이 난 대중은 보다 개성적이고 원류적인 본질을 찾게 되었다.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감성적 차별성은 이러한 대중의 욕구(need)를 충족 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지역의 전통과 생활과 예술을 어우르는 문화야말로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문화는 지역의 관광여가 수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지역산물에 대한 인식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부존자원이 척박한 낙후지역이 다양한 공연 및 예술품전시장과 문화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셋째, 지역의 문화활동의 진흥과 참여기회 확대는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첨단기술과 지식산업의 종사자들은 주거지 선택에 있어 경제적 요인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문화적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들었으나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전문 인력이 집중된 곳으로 기업 즉, 일자리가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이제 지역 경쟁력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엘리트 계층을 얼마만큼 보유하고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 지역에서 앞다투어 쾌적한 자연 및 주거환경의 마련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세계적인 지역혁신의 허브는 예외 없이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와 지역에 형성되어 있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닌 충남은 무궁한 문화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이 지닌 잠재적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